

휴켄스, 태광실업에 1770억원 매각

농협중앙회, 5월19일 MOU 체결 ... 2129만주 중 979만주 1만8100원에

휴켄스의 최대주주인 농협중앙회는 휴켄스를 부산지역의 신발기업인 태광실업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.

농협중앙회 관계자는 5월14일 “휴켄스 매각의 인수협상대상자로 태광실업을 선정했다”며 “5월19일 태광실업과 양해각서(MOU)를 맺을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농협중앙회는 보유주식 2129만주(지분율 56.0%) 가운데 979만주(지분율 46.0%)를 주당 1만8100원에(총 매각대금 1770억원)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.

휴켄스는 2002년 남해화학으로부터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정밀화학 핵심소재기업으로 2005년 매출 2759억원에 영업이익 121억원을 올렸다. (서울=연합뉴스 경수현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5/16>